

지역어와 문화

김무식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머리

필자는 어릴 적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 도회지로 전학 가 학교에 다녔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골의 우리 집 옆집에 손녀들과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 필자가 일곱 살 무렵에 그 할머니의 손자가 강원도에서 할머니 댁에 놀러 왔고 그때 처음으로 내 또래 아이의 말이 나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필자가 처음으로 느꼈던 언어적 충격, 방언 차이였다. 이어 필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강냉이, 거깽이’에 ‘옥수수, 지렁이’라는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통해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나와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대학에서 방언학 강의를 할 때 종종 느끼는 것이지만 공교육과 방송 매체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어휘 체계가 표준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다 보니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지역어 어휘는 매우 부족하며 이런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필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어 어휘에 대한 의미나 용법까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휘를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부담이 생겨 버린 셈이다. 어휘 영역에 비해 음운이나 문법 영역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표준어 교육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인상이나 느낌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어 조사를 하면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1980년대에 필자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방언 조사를 했던 시기와 2004년 이후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비교하면 제보자의 면담에서 지역어가 많이 사라졌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의 어휘가 새롭게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이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너무나 급격하게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은 썩 바람직하거나 유쾌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2000년대에 실시한 지역어 조사 사업은 국어학적 관점에서도 지역어와 지역 문화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송/고령 지역어의 새로운 어휘와 그 문화

2004년부터 실시한 지역어 조사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방언 조사와 달리 항목별 조사와 함께 자연성을 강조한 구술 발화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구술 발화 자료는 항목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자와 제보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신뢰성과 자연성이 큰 언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6~2007년도에 조사한 경상북도 청송, 고령 지역어의 어휘 중 새로운 어휘¹⁾ 몇 가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무꾸쫘그래기(무말랭이)²⁾; 콩지름, 콩나물; 녹띠지름(숙주); 막찌, 비지; 뽕시미(비지떡)

예 (1)은 모두 청송 지역어의 어휘 자료이다. ‘무말랭이’에 대응되는 경북 지역어는 이것 말고도 ‘오그락지’³⁾형이 등장하는데 ‘무말랭이’형이 ‘무를 말린 것’이라는 의미소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어휘인 데 비해 ‘무꾸쫘그래기, 오그락지’형은 무의 말림에 따른 형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조어진 것이다. 즉, 무가 건조됨에 따라 형태가 변화된 ‘쫘그라들고, 오그라든 꿀’에 주목을 해서 만든 어형인 셈이다. 이 지역어에서 보수적인 형태인 ‘콩지름’과 신어형인 ‘콩나물’, 숙주에 대응되는 ‘녹띠지름’도 그 조어형은 문화권에 따라 다른 경우이다. 콩나물과 숙주, 숙주나물은 전체 나물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어형인 데 비해 ‘콩지름’과 ‘녹띠지름’은 콩과 녹두를 식물로 키운 형태라는 관점에서 어휘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이들 두 어형은 모두 역사적으로 ‘콩기름(《한청문

1) 여기서 새로운 어휘는 기존의 국어사전이나 방언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나 쓰임이 다른 경우를 지칭하며 본고에서는 이런 종류의 어휘를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여기서 ^ㄹ 표시는 고음, 즉 성조를 표시한 것이며 []의 내용은 실제 표면음성형인 발음을, ()의 내용은 표준어 중심으로 대역을 한 것이다.

3) ‘오그락지’는 지역에 따라 무말랭이를 양념으로 버무린 반찬을 뜻하기도 하지만, 경북 지역어에서는 말린 무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갑》 12:37), 녹두기름(《역어유해보》 42)’에 소급되며 이들 어형에서 경구개음화가 실현되어 ‘콩지름, 녹띠지름’형으로 실현되었다.⁴⁾ 경북 지역어의 주된 실현형인 ‘비지’형에 대해 청송 지역어에서는 ‘막지’형이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비지’형은 이미 《훈몽자회》(비지 즈)에서 확인이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어휘이다. 청송 지역어의 ‘막지’형은 ‘종지 못한 것, 막 쓰는 것’의 뜻으로 만들어진 어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조어법적 관점에서는 ‘비지’형과 차이가 없기도 하다. 또 비지를 주재료로 만든 것인 ‘비지떡’에 대해 청송 지역어의 ‘뽕시미’형은 흥미로운데 이 어형은 비지떡이 가진 외형적 모습을 보고서 붙인 이름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반적인 떡에 비해 찰기가 없어서 외형상 결합도가 약한 모습을 그린 것이며 경북 지역어 ‘복시리하다, 뽕시리하다’형과 관련이 있는 어형이다. 이처럼 몇 개의 어휘지만 어휘의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삶과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문화적 차이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2) 손바꿈(품앗이); 통·바가치(이남박); 머거리(부리망); 추·망물(낙수); 베름재~이(대장장이), 베름간(베름간)(대장간)

청송 지역어의 예 (2)도 예 (1)처럼 지역의 차이에 따른 문화 및 인식의 차이를 각각 다른 조어법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담아내고 있다. 일반 어형인 ‘품앗이’는 ‘품+앗이(←앗+·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반면 ‘손·숨·바꿈’형은 ‘손+바꿈(←바꾸+·口)’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임

4)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어형은 ‘엿기름, 보리기름, 조기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같은 단어 형성 원리를 가진 어휘이다.

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두 어휘는, 구성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식의 틀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품앗이’형은 ‘일손’이라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품’을 중심으로 만든 반면 ‘손바꿈’형은 ‘손’의 유의적 의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조어를 한 경우이다. ‘이남박’에 대한 ‘통바가지’형이나 다른 경북 지역어에 실현되는 ‘살배기’⁵⁾형은 그 조어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남박, 통바가지’형이 주로 이 그릇의 모양을 대상으로 조어가 이루어진 반면 ‘살배기’형은 용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⁶⁾ 또 ‘부리망’은 ‘부리+망(網)’의 구성으로, 이에 대응되는 청송 지역어형인 ‘머거리’형은 ‘떡(食)+어리’의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낙수(落水)’는 한자어이며, ‘추마물’은 ‘추마(처마)+물’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형이다.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어형인 ‘베름재~이’형과 ‘베름간’형은 표준어형이 한자어인 데 비해 이는 고유어의 구조를 지닌 어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베름재~이’형은 수의적 변이형으로 경북 지역어와 강원 지역어에서도 실현되는데 이들은 모두 ‘벼리다’라는 동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어휘이다. 우리는 이들 어형을 통해서도 언어 사회의 시각에 따라 동일한 사물이나 개념도 각각 다른 형태의 어휘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 (3, 4)는 고령 지역어의 구술 발화 자료에 반영된 어휘이다.

(3) ㄱ. 주룽살: 실 그튼 그룽 거이 인잡 주룽살 기에서 걸치 논농기[실

5) 대구, 경북 청도를 포함한 남부 경북 지역어에 등장하는 어휘이다.

6) 이 세 어휘에 대한 실물의 모양은 모두 한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홈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그런 것이 인제 ‘실꾸리(또는 실타래)’를 초례상의 귀에 걸쳐 놓은 것이

- ㄴ. 북띠: 그건 북띠라고 이씨(그것은 ‘북띠(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명석을 고정시켜 주는 띠를 말함)’라고 있어
- ㄷ. 알테기: 뿌리 인자 알, 알테기 고계 인자 항 게 노만 뿔 송아지 한 마리 나뉘뿔이 인제 알테기(소의 뿔에 나이를 알 수 있는 표시), 알테기 그것이 인자 한 개 놓이면 뿔에,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다

(4) ㄱ. 공계다: 그래 인잔 공계가조 그래 인냐(그래 인제 포개서 그래 인제)

- ㄴ. 수까다: 저르 저룽기 지 장계 완, 이름 막 수까랑기(저래 저런 것이 저가 장가를 와서, 이렇게 그냥 애달프게 하는 것이)
- ㄷ. 북끓우다: 아 보꾸루운데예(아 복장을 꿩게 하는데)

위의 예 (3, 4)는 기존의 국어사전과 방언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이다. 위의 ‘주룽실’은 실이 타래로 되어 있거나 꾸리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북띠’는 소의 등에 명석⁷⁾을 고정시키기 위해 동여매는 띠를 말하며 ‘알테기’는 소뿔에 나이테처럼 표시된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4ㄱ)의 예 ‘공계다’는 ‘포개다, 받치다’로 대응되며 지역에 따라 ‘공구다’로 실현되기도 하는 어형이다. 또 (4ㄴ)형은 ‘애달프게 하다, 애먹이다’형으로 대역되는 어형이며 (4ㄷ)은 ‘복장을 꿩게 하다, 애먹이다’로 대역되는 고령 지역어의 어휘이다.

7) 이 지역어를 비롯한 경북 지역어에서는 주로 ‘삼장’형으로 실현된다.

- (5) ㄱ. 단갈덩기[당갈땡기]: 근 당갈땡기라 그래찌[그것은 보릿겨
(부드러운 겨)라고 그랬지
 ㄴ. 나락덩기[나락땡기]: 여 두고 나락땡기도 여코[넣어 두고 등겨
도 넣고]

(6) 작은머심[자근머심, 자은머심: 자은머시미라껴 이스씨(겉머슴이라고 있었어.)

위의 (5)는 이 지역어에 등장하는 ‘등겨’와 관련된 어휘인데, 이 지역어에서는 이 어휘 외에도 ‘신덩기’형도 나타나는 지역이다. 여기서 ‘신덩기’는 ‘왕겨’에 대응되는 어형이며 ‘나락덩기’는 ‘벧겨, 등겨’에 대응되는 이 지역 어형이다. ‘단갈덩기’는 ‘단(甘)+갈(粉)+덩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형이며 이는 부드럽고 상대적으로 단 성분이 있었던 ‘보릿겨’로 대응되는 어휘이다. 예 (6)은 이 지역어에 등장하는 머슴과 관련된 어휘이다. 이 지역어에서는 위의 어휘와 함께 ‘상머심, 중간머심’형이 등장하는데 이 어휘의 분화는 ‘상(上)-, 중간(中間)-, 작은’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되는 지역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두 단계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 ‘겉머슴’이 상머슴을 보조하는 것을 강조한 관점에서 만든 어휘라면 ‘작은머심’은 머슴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 만든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어휘든 개별 어휘는 그 언어 사회와 언어문화 체계 내에서 인식의 틀이 나름대로 반영되고 체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인식의 틀을 알지 못하는 어휘는 어원의 연결 고리를 잃어버려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인식의 틀이나 체계성이 없는 어휘는 없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수많은 어휘를 그 이유야 어떠한 간에 너무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을까. 이제 그동안 국어의 어휘 체계를 더 짜임새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민족 문화 자산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3. 사전과 지역어

다음은 고령 지역의 발화 자료인데 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 (7) 그래 오마 시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서는 그 이튿날부통 창마중
(그래 오면 시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나서는 그 이튿날부터 새벽마다)

위의 예는 ‘창+마중(보조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형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구성이다. 이런 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사전을 찾는다고 해도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위의 예는 형태소 분석이라도 가능하지만 앞의 예 (3, 4)는 더 힘든 경우이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도 답을 얻지 못한다면 국어 사전에 문제가 있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표준어를 중심으로 한 규범 사전에 집중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사라져 가는 어휘들을 등재함으로써 국어의 어휘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이들 어휘에 내재된 문화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마무리

요즘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역어가 각종 방송에서 드라마의 표현이나 인기 연예인의 대화, 희극의 소재로 쓰이고, 전국 사투리 경연 대회까지 개최되는 것을 보노라면 분명히 지역어에 대한 관심이 겉보기에는 확대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생겨난 것은 지역과 상관없이 방송 매체와 공교육으로 인해 개별 지역어가 화석화되었거나 화석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히기도 한다.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쪽 분야와 관련이 없는 학자들, 일반 모국어 화자들 상관없이 조금만 우리말에 대해, 자기의 말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말이 사회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 사회 구성원끼리 소통하고 독특한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것임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국어학자들이 정체 모를 외래어나 외국어의 오·남용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국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어의 소멸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언어의 분화에 의한 의사소통의 문제나 국가적 정체성 확립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정보화 수준이 발달한 사회에서 요즘은 지역어, 지역 사회, 지역 문화의 소멸을 걱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 정문이나 건물에 붙어 있던 표어 중 잘 바뀌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창의적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런 표어들이 누차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이런 이야기는 시대를 떠나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이에 앞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획일적인 생각이나 획일적인 사회를 지향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순서이다. 다양한 사회의 구성 없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고, 다양한 생각 없이는 다양한 사회도, 창의적인 인재를 기대하는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지역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활성화, 다양한 지역 문화의 형성을 돕도록 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김무식(2006), 《2006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청송)》, 국립국어원.

김무식(2007), 《2007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고령)》, 국립국어원.

김무식(2009), 《경북 청송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김무식(2011), 《경북 고령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이상규(2000), 《경북 방언사전》, 태학사.